

## 16세기 『목재일기』에 나타난 낙폭지 재활용에 관한 분석

김은경<sup>1</sup>, 김지원<sup>1</sup>, 이소영<sup>1</sup>, 정재민<sup>2\*</sup>

<sup>1</sup>국립수목원, 연구원, <sup>2</sup>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

### A Study on the Recycling of Nakpokji in Mukjae Diary in the 16th Century

Eun Kyoung Kim<sup>1</sup>, Ji-Won Kim<sup>1</sup>, So Young Lee<sup>1</sup> and Jae-Min Chung<sup>2\*</sup>

<sup>1</sup>Researcher, Division of Garden and Plant Resources, Korea National Arboretum, Pocheon 11186, Korea

<sup>2</sup>Senior Researcher, Division of Garden and Plant Resources, Korea National Arboretum, Pocheon 11186, Korea

본 연구는 16세기 과거에서 낙방한 시권(試紙)인 낙폭지(落幅紙)가 어떻게 재활용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시험 답안지는 시권, 시지(試紙), 명지(名紙), 과지(科紙)라 하였으며 두껍고 품질 좋은 종이가 사용되었다. 국가의 특별한 경사가 있거나 왕이 친림한 과거 시험의 경우 응시자에게 국가에서 시지를 제공하였으나, 그 외 3년마다 치르는 정기시험인 식년시(式年試)는 개인이 별도로 마련하였다. 전국 각 도와 한성부에서 치러졌던 초시(初試)를 비롯한 복시(覆試), 별시(別試), 증광시(增廣試), 춘당대시(春塘臺試) 등 과거 응시자의 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시지 마련은 응시자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과거에 합격한 시지는 응시자에게 돌려주었으나 불합격한 시지의 경우는 돌려주지 않고 국가에서 재활용하였다. 낙폭지는 북방 군사들의 추위를 막는 방한용 의복인 지의(紙衣)로 사용되었으며, 화전(火箭), 가슴을 가리는 갑옷인 엄심갑(掩心甲), 비를 막는 장막용이나 우의(雨衣)로 사용되었다. 낙폭지는 건물 내부 도배 재료로 초배(初褙)에 이용되었으며, 그림이나 책의 배접용으로 활용되었다. 16세기 『목재일기』에는 이문건이 32년간 성주 지방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인근 지역 관인(官人)과 지인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낙폭지를 입수했던 기록을 살필 수 있다. 지방의 종이 제작 정도, 종이 수급 현황, 낙폭지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통해 일상 속 종이 재활용 상황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배접, 표지, 명지, 낙폭지

\*(Corresponding author) rhuso@korea.kr, Tel: +82-31-540-8954